

시끌벅적 e-스타



전원책 변호사 시원한 입담 '전거성'이라…

전원책 변호사의 인기가 대단하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가 하면 팬카페([cafe.naver.com/lovejunbanchak](#))까지 생겼다.

그가 방송에 출연해 큰 소리로 허통치는 듯 쏟아낸 밤언들은 네티즌들에 의해 '전거성 어록'이라고 이름 붙여져 폭넓게 유통되고 있다. '큰 별'이라는 의미를 가진 '거성(巨星)'은 최근 개그맨 박명수가 '허통개그'를 통해 얻은 별명. 전 변호사도 이와 연결해 '전거성'이라고 불린 것.

영화 '친절한 금자씨'를 패러디한 '단호한 원책씨'라는 합성 사진도 등장했다.

유명 연예인 못지 않다. 그가 인터넷에서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것은 지난 1일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 토론자로 출연, 군복무 가산점제에 대한 찬성 입장과 직설 화법으로 밝힌 탓이다.

'군복무 가산점제'는 공직 채용 시험 때 군가산점을 적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으로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그는 이날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의 말에 "이 세상에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자도 즐립고,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곳이 군대입니다"라며 거칠없이 발언했다. 또 "가고 싶은 군대요? 돈 백만원을 줘도 안 갑니다", "군대는 폭력을 가르치는 교육 집단입니다. 교육은 무슨?" "낮에 힘들게 군사훈련 받고 밤에 무슨 학점을 따요?", "군복무에게 연금 같은 것으로 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 빚이 300조입니다. 알고는 있습니까?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시원하다. 남성의 입장을 대변해줬다"며 열광하면서 인터넷 스타로 떠올랐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나의승의 음·악·산·책

"기타는 작은 오케스트라" 베토벤이 말했다. 너무 흔해서 사용하기 쉽지만, 이렇게 좋은 표현은 찾아보기 어렵다.

요즘 그 작은 오케스트라의 세계, 기타의 세계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 '바리톤 기타'가 최신형 무기처럼 등장했기 때문이다. '바리톤'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소리의 높낮이 안에서 악기가 차지하는 영역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타의 경우, E에서 시작되고 E로 끝나는 개방형의 음 맞춤을 갖는다. '미·라·레·솔·시·미'가 그것이다.

'바리톤 기타'는 기준의 기타보다 낮은 음역을 사용한다. 그래서 현도 다르고, 튜닝도 다르게 하



공연에서 어쿠스틱 바리톤 기타로 객석의 심장을 낭만 없이 고동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흡인했던 기억이 있으나, 그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일본의 오시오는 기타를 들고 산속에 들어가 고독한 독공을 마치고 세상에 나왔고, 지금은 일본의 국가 대표적 바리톤 기타 연주자가 되었다. 그의 연주는 서구의 연주자들이 갖기 쉽지 않은 동양적 섬세함을 갖고 있어서 존재 값이 있다.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 받는 재즈 기타리스트, 패

메스니(Pat Metheny)는 어느 날, 어쿠스틱 바리톤 기타(루시에 린다 맨저·Luthier Linda Manzer·캐나다)를 한 대 선물 받았던 것 같다. 대개 거장들은 그들의 악기를 무료로 공급받는 일이 간혹 있다. "귀하 같은 연주자께서 저희 악기를 써 주시는

기타의 진화 '바리톤 기타'

는데, 일반적인 기타보다 더 낮은 음의 B로 시작되고 B로 끝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솔·래·라·미·시·이'의 조율을 한다.

클래식 보컬에, '데너 바리톤 베이스'가 있듯이, 음의 영역에 따라서 '기타 바리톤 기타 베이스 기타'가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래서 '바리톤 기타'는 기타와 베이스의 중간에 위치하는 음의 대역을 갖고, 거기에 합당한 음악적 역할을 하는 악기가 된다. 그리고 그 음역은 '일렉트릭', '어쿠스틱'에 공유된다.

그 가운데 '어쿠스틱 바리톤 기타'는, 연주자에게나 청중에게나 무척 흥분되는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진화의 여지를 벌로 남겨 놓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일렉트릭 기타에 비교했을 때, '어쿠스틱 바리톤 기타'는 아직 진화의 여지를 좀 더 남겨 두고 있다고 생각되며, 만드는 장인들도 그렇지만, 연주자마다 다양한 개성의 음악들을 지금도 들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80년대 후반, 미국의 마이클 헤이스가 '레드 락'

것만으로도 영광이겠습니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해본 추측일 뿐, 그의 기록에는 없는 말이다.

그리고 어느 눈 오는 날 저녁, 혼자서 개인 스튜디오에 들어가, 그와 바리톤 기타 한 대와 한 개의 마이크 앞에 앉아서, 물입에 들어갔던 것 같다.

연중 대부분의 나날들을 연주여행으로 보내는 그에게, 개인 스튜디오는 어쩌면 트래킹을 마치고 돌아오는 베이스 캠프와 비슷할 것만 같다. 투어(tour) 중에 수없이 즉흥 연주했던, 익숙한 곡들, My song, Last train home.... 최근 포크적인 재즈로 잘 알려진, 노라 존스의 몬노 화이(Don't know why), 스테레오, 5.1채널 7.1채널의 시대에 이렇게 단순한 사운드로 깊은 느낌을 주는 음악들, 들으면서 생각해 본다. "음악은 아름다우면 된다" 앨범 〈시즌〉의 제목은 "One Quiet Night", 음악에도 '일 필휘기'의 경지가 있는 것일까. 메스니는 그런 선율을 별일 아니라는 듯이, 또 하나 남기고 있다.

〈음악 컬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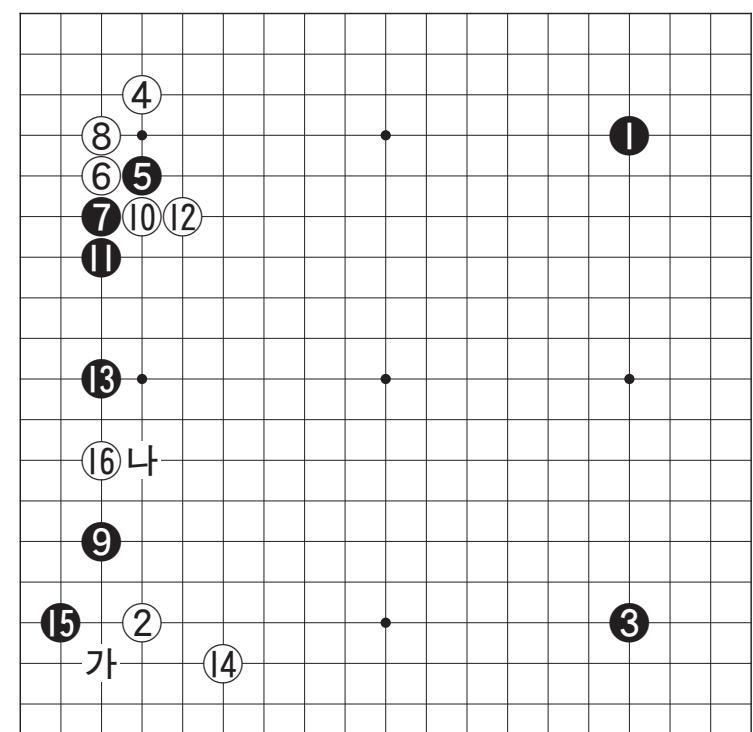
제16회 강의

직장대행 단체 3회전

사실상의 결승전 2국 1보(1~16)

白 박광주 5단
(포스코)

黑 김광식 5단
(주)송림



대회가 후반에 접어들수록 비중 있는 대국이 늘어나고 있다. 이 판은 우승후보들의 격돌로, 사실상 결승전과 다를없는 강자들의 대결이다.

김광식 5단은 호남최강자전에서 우승하는 등 수십년전부터 이름을 날린 이지역 아마최강자 중의 한명이고 박광주 5단은 작년 이 대회에서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3위를 차지한 동부지역의 최강자다. 누가 우승을 차지하더라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강자들이 너무 일찍 만나게 된 것이다.

돌을 가린 결과 김광식 5단의 흑번, 김 5단은 힘을 위주로 하는 전투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흑을 잡게된

것이 기분이 좋을 것 같다. 과연 김광식 5단은 쌔움바둑답게 양회점을 차지하며 전투대형을 펼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박광주 5단도 쌔움에서는 지지 않아하는 힘바둑. 김광식 5단이 밟빠르게 흑 9로 걸쳐가자 대번에 백 10으로 끊어 처음부터 몸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흑 15는 백이 '가'에 받아달라는 것, 그러면 흑도 '나'에 지키겠다는 것이다. 백 16이 이런 의도를 정면으로 거부한 강력한 도발이다.

〈오큐럴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YOBOnline 교보생명

바둑소식

이창호, 왕중왕전 강동윤 제압

이창호 9단이 3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4기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결승3번기 2국에서 강동윤 5단을 167수 끝에 흑 불계로 꺾고 1승1패의 균형을 맞췄다.

이 9단은 오는 16일 왕중왕전 결승3번기 최종국을 갖는다. 이창호 9단은 7월에만 두 개의 타이틀 생활전을 벌인다. 이미 왕위전은 2 대 2로 최종국만 남겨놓았고 왕중왕전도 이창호 9단이 오늘 1승을 거두며 마지막 대국을 맞이하게 됐다.

이 대회의 우승상금은 4천 500만원(준우승 1천800)만원이다. 제한시간 10분, 초읽기 40초 3회로 진행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 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5일(음 5월 21일 庚子)

子 36년생 협조자가 나타나 새로운 일을 추진해간다. 48년생 적장 를 포로로 잡은 적이나 큰 상이 있을 수다. 60년생 의외의 돈은 쉽게 사라진다. 72년생 이웃을 살펴보면 도울 일이 많으리다. 84년생 독신자는 새로운 연인을 만난다. 행운의 숫자: 18, 32

丑 37년생 친절한 전진으로 꼭 성취될 것이다. 49년생 하루가 평안하니 주위를 둘러보라. 61년생 계획한 일이 잘 이루어진다. 73년생 자녀가 떠나져 살아야 할 경우가 생기지만 좋은 일이다. 85년생 고개를 숙여서 땅을 한번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04, 45

寅 38년생 세상에 국복되지 않는 어려움은 없다. 50년생 신사나 헛된 문서에 속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62년생 괴롭 만은 않으면 결과는 좋으리다. 74년생 보고 싶은 사람이 찾아온다. 행운의 숫자: 24, 25

卯 39년생 주변의 도움으로 신사가 발생한다. 51년생 구사가 괴롭거나 큰 일은 아니다. 63년생 외부의 일이 가정에까지 소란사로 범하니 주의를 둘러보라. 75년생 처음에는 고로스러우나 나중은 허리에 힘들다. 행운의 숫자: 03, 45

辰 40년생 협조자는 있으나 결과는 반반이다. 52년생 삼사일환하니 미움은 없으리다. 64년생 업 감정은 빨리 털어버리면 새로운 정이 솟아난다. 76년생 말다툼이 송사로 비화 될 수도 있으니 빨리 감정을 정리하라. 행운의 숫자: 05, 26

巳 41년생 차 조심 사로잡지. 53년생 미운 사람과 좋은 사람이 생긴다. 65년생 아득한 보금자리이나 불편한 사람이 같다. 77년생 생자 자신의 가정과 직장 사이에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01, 35

午 42년생 마음의 고통은 있으나 가정은 평안하다. 55년생 허리를 훈련하면 조심하면 대손은 없다. 66년생 부부사이에 이해하는 대화와 사랑스런 자녀를 살펴보라. 78년생 세상에 국복되지 않는 어려움은 없다. 행운의 숫자: 21, 25

未 43년생 가족 창고가 모두 내 것은 아니다. 55년생 수하인과의 봉급은 절대 금지하라. 67년생 간장과 위장의 평안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아보라. 79년생 새 문서를 친구가 가져온다. 80년생 모친과 함께 허리에 힘들다. 행운의 숫자: 14, 38

申 44년생 어려운 보여도 쉽게 해결된다. 56년생 점은 있으나 만나지 못하고 안타까울 뿐이로다. 68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고 내실 있게 결정 난다. 80년생 보기 좋은 데기로 좋다. 결과 속이 꽉 차다. 행운의 숫자: 17, 29

酉 45년생 파도가 높으니 대고가 예상된다. 57년생 가정의 흰은 죽 달에서 나온다. 69년생 방풍립은 여자가 만들어야 효과가 있다. 81년생 남을 높이看重하면 자신도 올라가니 타인을 존중하고 떠받들라. 행운의 숫자: 08, 37

戌 46년생 좋은 협력자를 만나 큰 도움을 받는다. 58년생 집안은 평안하고 집 밖은 시끄럽다. 70년생 만나는 사람마다 오래 가지 못하니 선택을 잘해야 한다. 82년생 이성 보다 친구를 만나라. 행운의 숫자: 09, 36

亥 47년생 육심은 화를 부르니 소탕대설 하자마자. 59년생 모든 일에 불편이나 타락할 수도 있으니 점심을 잘하라. 71년생 친인척의 면으로 걱정이 생길 수도 있다. 83년생 가계는 국가 경제로 통한다. 행운의 숫자: 07, 40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틱 뱃드

제품구입문의: (주)효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941>

Am I right in thinking that~?
~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A : If you are clear about the contract, please sign. If not, please take your time.

B : I'd like to ask you about point No.3. Am I right in thinking that I must pay by bank draft?

A : That's right.

B : Oh, I see.

A : 만약 당신이 계약에 대해 다 이해하셨다면, 서명을 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천천히 보십시오.

B : 제 3번 항에 대해 물어보고 싶군요. 반드시 은행수표로 지불해야 합니까?

A : 네 그렇습니다.

B : 네, 그렇군요.

* take one's time :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다

*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데요. = I don't understand this.

* 제 영어 실력이 짧아 당장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군요. = My English is too poor to understand it right off.

오하요우 니혼고 <941>

夏(なつ)ばてにはあぶらっこいものがいいんでしょうね。
더위에는 기름기 많은 음식이 좋지요.

A :今年の夏も暑(あつ)い日が続(つづ)き